

# 하늘 가까운 곳에 끝없이 펼쳐진 '들늪' 이...



거품벌레집.



쉬렁나무 꽃.



늪은산세줄나비.



취풍나무 꽃.



식충범잠자리.



## (100) 밀양 재약산 표충사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시민들이 모금이나 증여를 통해 중요한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시민환경운동이다.

100여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먼 시원은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자들은 철저한 무소유였던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숲을 증여해 수행처로 삼게 하였다. 그 숲은 수행자 집단에 의해 영구히 지켜지게 되었다. 1600년 한국불교에서도 수행자들이 산중에 사찰을 지어 숲을 지키고 가꾸어 왔으니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는 2000년 들어와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작년(2007년)에 밀양 표충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약산 산들늪이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산들늪이 자리하고 있는 해발 1108m 재약산은 낙동정맥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가지산을 비롯해 1000m급 산들과 함께 영남 알프스를 이룬다.

표충사가 재약산에 처음 터를 잡은 것은 신라 무열왕 때 원효 대사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 후, 흥덕왕 때 인도의 고승이 재장했다고 전한다. 흥덕왕의 셋째 아들이 병에 걸려 산중의 영정약수를 마시고 나았다고 해서 절 이름을 '영정사(靈井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재약산(載藥山)' 이름도 그때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영정사가 오늘의 '표충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사명 대사 사당인 '표충사(表忠祠)'가 절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정주장에 내리면 재약산과 천황산 능선이 멀리 보이고, 그 골짜기에서 시냇물이 내려온다. 시냇물은 아래쪽에서 단장천에 합류되고, 단장천은 다시 밀양으로 내려가서 밀양강이 된다. 시냇천 어류는 벼들치와 갈겨니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피라미, 쉬리, 돌고기, 들마자, 자가사리, 참물개개 물을 타고 갑발골까지 올라온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피라미를 '피리'라고 부르고 있다. 불철 짝짓기 무렵이면 수컷은 아름다운 혼인색을 띠고, 뒷지느러미가 길어진다. 피라미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전국 어디에서 서식한다. 표충사까지는 늪은 나무들의 숲길이다. 초입에 노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늪은 활엽수들이 주류를 이루는 숲길이다. 일주문에서부터 길바닥에 화강암 판재가 깔려 있는데, 비나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수충루 앞 가람각 내부에 '나무가 람수호신위(南無伽藍守護神位)'란 위패가 봉안돼 있는 걸 보면 다른 절의 국사당(國師堂)과 같은 성격의 건물인 듯하다. 국사신앙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절을 지키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표충사 사역이 넓지만 가람배치가 흩어진 느낌을 주는 까닭은 임진왜란 이후 표충사당과 서원이 경내에 들어선 까닭이다. 지금의 동선은 마치 경내의 옆구리를 통해서 월담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그



표충사 대밭.

## 표충사 대나무밭은 조선때 화살·무기 만들던 관죽전 산들늪엔 꼬마잠자리·하늘다람쥐 등 희귀동물 서식

전까지는 대광전과 마주한 우화루가 진입로였다고 전한다. 만일루 앞에 늪은 사철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늪과 병들어 여기저기 사지를 많이 잘렸지만, 철이 되면 꽃 피우고 종자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루 건물의 합각에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어놓은 나무 문양도 눈맛이 좋다.

표충사 대나무밭은 역사유물이다. 조선시대에는 화살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대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남쪽지방 여러 곳에 관죽전(官竹田)을 지정하여 대나무를 생산케 하였는데, 표충사 대나무밭도 그때 관죽전으로 지정됐다. 그 연유로 '죽림사(竹林寺)'라는 별칭도 얻었다. 현재 대밭 속에는 대나무로 자리를 엮어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템플스테이가 있을 때 탐방객들이 들어와서 참선 실수를 하는 곳이다. 효봉 선사 사리탑은 거대한 유문암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유문암은 화강암질의 마그마가 분출해 급히 냉각되면서 생긴 것으로, 오랜 풍화작용으로 틀이 생기면 공명(共鳴)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바위를 두드리면 목탁소리가 난다.

사리탑 앞으로 내원암-한계암-사상암을 지나 천황산으로 오르는 숲길에 계곡을 끼고 나 있다. 내원암에서는 양병을 해서 절 살림에 보태고 있다. 표충사 일대에 자생하는 초본 가운데 노루오줌, 석죽풀, 풀쭉, 기린초, 돌나물, 부처초, 개망초, 까치수염, 현호색, 양지꽃, 물단풍, 배암자초 등이 때때로 꽃을 피워 꿀을 제공하고 있다.

노루오줌은 여러해살이풀로, 여름을 여는 꽃이다. 묘약으로 예쁘거나, 꽃꽂이 꽃대에 솜사탕처럼 모

여서 피는 홍자색 꽃도 예쁘다. 주로 계곡 주변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며,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찰 조경에도 어울린다.

표충사 주변에서 관찰된 나비로는 늪은산세줄나비를 비롯하여 긴꼬리제비나비, 애기세줄나비, 네발나비, 모시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등이 있다. 쇠족범잠자리, 왕잠자리, 물잠자리, 벼치레잠자리, 밀잠자리, 된잠자리, 아시아삼잠자리 등은 시냇천이 흐르는 사하촌 부근에서 관찰됐다.

늪은산세줄나비는 세줄나비 가운데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종이다. 검은색 날개에는 3줄의 흰 띠가 있고, 뒷날개에는 적갈색 무늬가 있다. 다른 세줄나비에 비해 개체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쇠족범잠자리는 왕잠자리의 일종으로, 주로 계곡 주변에서 서식한다. 가슴은 검은색, 가슴 옆면과 뒷머리는 노란색, 배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 겹눈은 황록색을 띠고 있다.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잠자리이다.

숲길 가장자리 나뭇가지에 마치 침을 뱉어놓은 듯한 거품들이 보인다. 이것은 거품벌레가 몸을 숨기기 위해 배 끝에서 나오는 액체를 공기로 부풀려서 거품처럼 만든 은신처이다. 이 거품의 재료는 나무의 수액으로, 새끼들의 먹이로도 제공된다.

한계암과 사상암을 지나면 천황봉으로 이어진다. 요즘 천황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시비에 올라왔다. 최근 낙동강환경청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거의 허가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이 결정에 대해 표충사와 환경단체들이 산들늪 습지 파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사자평 가는 길은 수충루 앞에서 왼쪽으로 난 계곡길이다. 물소리 사이로 멀리 검은등배꾸기 울음소리도 함께 들려온다. 딱새, 곤졸박이,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멧비둘기, 붉은배새매, 흰배지빠귀 등이 관찰됐다. 사자평에 이르는 구간의 숲은 온대남부활엽수들이 우점한다. 가막살나무, 감태나무, 개암나무, 개울나무, 굴피나무,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노각나무 등이 모두 온대남부활엽수이다. 쥐똥나무, 쉬렁나무, 인동, 병꽃나무, 다래, 산딸기, 산수국, 조륙사리 등이 꽃을 피워서 여름을 열고 있다.

쥐똥나무 이름은 열매의 생김새를 보고 지었다. 북한에서는 검정알나무라고 부른다. 쥐똥나무 하면 일반적으로 생울타리를 조성수로 각인되어 있지만, 야생에서는 산기슭이나 계곡에서 자란다. 쥐똥나무 꽃은 흰색으로 크기는 자잘하지만, 향기가 진한 밀원식물이다. 쉬렁나무는 높이 2m 가량의 관목이다. 산기슭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라며, 뿌리가 땅속줄기처럼 뻗고 한군데에서 많은 줄기가 난다.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사찰에서 관상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심어도 무난하다. 쥐똥나무를 남방계 식물로 보고, 쉬렁나무를 북방계 식물로 본다.

표충사 주변에는 두꺼비 등 여섯 종류의 양서류가 발견됐는데, 그 중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의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무당개구리의 경우는 표충사 경내 곳곳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들늪에서는 희귀종인 물두꺼비 서식이 최근 확인됐다.

사자평은 재약산 동쪽 기슭에 펼쳐진 해발 700~800m의 고지대 평원이다. 사자평 일부에 자리한 산들늪은 '산중에 있는 늪은 들늪'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58만㎡(28만평)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산습지이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 습지가 형성된 데는 바닥이 석영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잘 담아두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이탄층(泥炭層)이 물 막은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까닭도 있다. 이 늪에는 진피리새를 비롯한 곤근이주걱 등 습지식물과 천수성 목본인 오리나무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희귀종인 노랑무늬붓꽃, 북주머니난, 큰방울새난, 개불알꽃 등이 있다.

동물로는 희소 가치가 높은 꼬마잠자리를 비롯해 숲과 하늘다람쥐까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산지습지와는 달리 벼들치와 가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약산의 유류동천가 폭포에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것도 머리 꼭대기에 이 같은 늪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된 후 2006년 12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산들늪을 위한 표충사의 노력은 본보기가 될 만하다. 표충사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습지연대를 조직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시로 시민들에게 산들늪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환경부가 산들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도 표충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가하면 5월 23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들늪을 위한 세미나도 열었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temple-@hanmail.net)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울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사업	청주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노해운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주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전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	서울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구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사	부산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문직	대구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차기공사	서울	
임태민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천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김기범	1969년생	180	전문대	졸	자영업	서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	졸	회사원	경기고양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오성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여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주	민익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송업	부산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울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	졸	회사원	대전	노규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사	진해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전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남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	경기도
정화성	1960년생	175	대	중	퇴직	경기이천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	서울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	경기도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사	대구시
정지영	1974년생	174	고	중	퇴직	수원	최우영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구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리사	경기도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	재	금융직	서울	김진목	1969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충북
김중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울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사	대구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서준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	경기도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인양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	재	공무원	서울	박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	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중	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캠페인 PR]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